



김승희 선수, 남아공 세계론볼선수권대회서 금메달

정읍시는 지난 13일 2024 남아공 세계론볼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승희 선수를 초청해 간접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이화수 시장을 대신한 송금현 부시장과 시 장애인체육회 이근호 상임부회장, 박재희 사무국장 등은 김승희 선수를 비롯해 이명숙 론볼 시 대표선수를 격려했다.

김승희 선수는 지난 5월에 열린 2024 남아공 세계론볼선수권대회 B8 여자단식 종목에서 소중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2023년에 열린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단식 종목에서 금메달 및 혼성복식 동메달,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혼성복식 금메달 등의 퍼거리를 달성해 정읍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의 금메달 수상은 정읍을 물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김승희 선수는 “남아공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 탓에 협력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경기에 임했다. 운이 따라줘서 멋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청야구단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대회 우승

전남 함평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김제시청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4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이번 제11회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함평구청과 전남야구장, 기아월드 필드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김제시, 통영시, 예산군 등 전국에서 총 11개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 및 본선경기를 거쳐 결승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김제시청이 율주군청을 18대1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 최우수감독상에 상하수도과 강규석 최우수선수상에 의회사무국 강성정 선수가 수상했다.

김제시청야구단은 지난 2008년에 창단했으며, 김제리그에 2개팀이 참여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 끝에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운봉읍,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대 설치

남원시 운봉읍은 최근 운봉사무소와 바레봉 행복센터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였다. 이번 설치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중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운봉 읍내는 시가지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 요구되어 설치하게 되었다.

이번에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전동휠체어, 전기스쿠터 등 2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공기주입기, 휴대전화 충전 기능까지 갖춰 이용하기가 훨씬 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관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동하여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만건축사사무소, 이웃돕기 2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금만건축사사무소(대표, 류충렬)가 지난 12일 김제시 드림스타트 이용 대상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 소재의 금만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0년도에 설립된 이후 민족도 높은 건축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해마다 김제시 드림스타트에 200만원씩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충렬 대표는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성금을 마련,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꾸준한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베풀림 역할을 해주고 있는 류충렬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전북자치도,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 사진공모전 · 특강 진행

전북자치도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포상과 사진 전시, 노인학대 예방 특강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는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인권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홍송이 동국대학교 교수가 ‘사회적 고독과 고립(부제: 사회적 방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 현황과 해결방법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패널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14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형상정보알리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석면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등에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환대행위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강화 등 노인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김제시지부, 한마음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범농협 한마음 농촌 일손지원의 날에 김제 금구면에 위치한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범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지원의 날은 농협중앙회에서 영농철 전국적 농촌일손돕기 집중 추진과 범국민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동김제농협(조합장 최진오) 직원 및 농가주부모임 회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히우스 상주재배를 위한 배드설치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는 “우리가 하면 2~3일 걸리는 작업을 빠르게 끝마치고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워했다.

조원석 김제시지부장은 “함께해주신 직원 및 봉사자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일손돕기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 기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노인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북자치도가 노인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공연장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노인 맞춤 돌봄 광역지원기관(우리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유구 기반으로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중앙 노인 맞춤 돌봄 지원기관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참여 기회가



획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면 노인복지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교육으로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협무주군지부-LX 무주지사 등, 농촌일손돕기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와 무주농협(조합장 관동열)은 지난 13일 LX한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지사장 이형삼)와 함께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승이농가(무주군 적성면 소재)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과 LX한국토정보공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승이 봉지씌우기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형삼 지사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 이백면, 가축위생방역 전북본부와 협약 체결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동준)는 지난 14일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과 지역내 저소득 복지대상 가구의 자립과 위기 해소를 돋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전북본부(이하 본부, 본부장 조선기)’와 ‘이웃돕기 나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부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농촌일손돕기△깨끗한 농촌 미을 환경정비를 이백면과 협의해 추진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직원들의 물품 기부 캠페인△재활용품 교환 사업: 종이파-회장자, 폐건전지·종량제 봉투)을 통해 모든 화장자와 종량제 봉투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기 본부장은 “올해부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기부금과 물품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에 안동준 면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내 1인 1가구 방문을 통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기전대, 혁신융합캠퍸스 제1기 서포터즈 임명식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퍸스사업단은 지난 13일 혁신융합캠퍸스(완주캠퍼스) 및 학과 홍보를 위한 제1기 서포터즈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식으로 선정된 제1기 혁신융합캠퍸스 서포터즈 학생들은 전주기전대에서 진행하는 혁신융합캠퍸스 구축사업, 캠퍼스 이전학과 인내, 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개 등 혁신융합캠퍼스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융합캠퍸스 제1기 서포터즈는 이차전지소재부품과, 반려동물과, 치유농업과, 밀산업스포츠재활과 학생들로 구성, 총 6명의 서포터즈는 SNS 및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덕현 사업단장은 “혁신융합캠퍸스 이전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 전주시새마을회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는 14일 전주시새마을회와 신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병훈 총장, 국영재 총학생회 회장, 전주시 새마을회 송병용 회장, 권강현 시무국장, 새마을지도자 전주시협의회 박정석 회장, 전주시새마을부녀회 유선영 회장, 새마을운동 전주시지부회 한복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구 소멸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전주비전대는 새마을회 학생 등이 신설 등 학생들의 새마을회 주도 지역 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새마을회는 동아리 운영, 장학금, 포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취업, 대학 발전 및 학생 기여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은 ‘전주시새마을회와의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며 “총학생회가 학생 등이 활동 등에 참여해 대학 발전 및 학생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 보절면, 양파 농가서 농촌일손돕기

남원시 보절면(면장 양재우)은 지난 14일 시 보건소(소장 한용재)와 보절면의 양파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작업에는 보절면과 보건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양파캐기 돋기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해당 농가주는 “다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공동원들이 도와줘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대산면, 독거어르신 댁 대청소 실시

남원시 대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류 청) 최근 풍성한 노인복지센터, 시청 시민소통실 생활소통팀과 독거어르신 집의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이 가구는 1일 1가구 소통행동을 추진 중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된 가구로, 어르신이 치매로 인해 풍성한 노인복지센터 내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방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주방은 청소하지 않아 쥐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유해 해충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다.

이에 노인복지센터와 건강보합공단과의 통합사회체의를 진행해 대대적인 청소를 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